영어어문교육 *제25권* 4호 2019년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19.25.4.153

2015 개정 초등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및 의미 단계의 적정성 연구

황 필 아
(경인교대)

Hwang, Pil-ah (2019).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vocabulary and meanings in the primary English textbooks revised in 2015.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4), 153-172.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vocabulary and meanings used in the primary English textbooks. For this purpose, the vocabulary words and meanings in the English textbooks for 3rd~6th grades were compared with the two criteria: one is the English Vocabulary Profile (EVP), the common standard for English, and the other is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J Wordlist, which reflects the EFL context. The quantitative analysis compared the number of used vocabulary words and semantic levels by grade, and the qualitative analysis examined what vocabulary is beyond the elementary level, and what level of meaning is presented in the textboo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quantitative result showed that textbook vocabulary and meanings we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A1 and A2 levels throughout grades 3~6, while vocabulary and meanings from the B1 and B2 levels were generally used less, but increased in grades 5~6. Second, the qualitative result revealed a small number of vocabulary words and meanings used as not appropriate for the elementary level. Suggestions for selecting the vocabulary and meanings in the primary English textbook were made according to the level specified by the EVP and CEFR-J Wordlist.

[vocabulary/meaning/primary English textbook, 어휘/의미/초등영어 교과서]

I. 서론

어휘는 Wilkins(1972)의 주장 “While without grammar very little can be conveyed, without vocabulary nothing can be conveyed” (p. 1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미전달을 위한 의사소통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이 어휘 학습이 중요시됨에 따라, 어휘 목록은 언어 교수, 특히 외국어 교수에서 중요한 자료 제공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즉, 어휘 목록은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필수적인 어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재 개발자는 이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교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이전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다음 두 가지 측면이 개선되었다(신동광 2018; 이문복, 신동광, 2015). 첫째, 전문가들의 직관 또는 해외 어휘 목록이 아닌 대규모 어휘 코퍼스를 기반으로 빈도수와 사용범위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하였다. 둘째, 초등 권장 어휘는 외국어 학습 상황과 어린이 학습자들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친숙도'와 '초등 권장 어휘 추천'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은 동일어의 의미 변화 및 문법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개의 낱말로 간주한다는 지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형미(2011)는 동일한 어휘라도 품사가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예. *mean*), 하나의 어휘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English Vocabulary Profile(EVP)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VP는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에 따라 영어 어휘를 제시하되, 어휘의 의미(sense)에 따라 단계를 구분함으로써 교수 및 평가, 교재 집필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즉, 어휘를 하나의 중심 의미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어휘가 가진 개별적 의미(individual meaning)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동일한 어휘라도 다양한 의미는 습득순서가 다르다는 학습자 코퍼스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일본도 중국, 한국, 대만 등 일본과 유사한 EFL 상황의 인접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분석과 EVP를 참조함으로써 단계별 어휘 목록인CEFR-J Wordlist를 제시하였다(Negishi, Takada, 20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변화에 따른 어휘 목록(주형미, 2011)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초등영어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및 의미가 초등영어 수준에 적합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당한 절차와 공인된 검증을 통해 인정받고 있는 EVP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EFL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CEFR-J Wordlist와 비교하여 교과서 어휘 및 의미의 적정성을 양적·질적 분석하고자 한다. 양적 분석은 학년별 사용된 어휘 및 의미 단계를 수량화하여 비교하며, 질적 분석은 초등영어 수준에 견

주어 어려운 어휘들이 무엇이며, 개별 어휘의 의미가 어떤 단계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기존 어휘 목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 어휘 목록을 개선하였다(신동광, 2018; 이문복, 신동광, 2015). 첫째, 기본 어휘 목록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대규모 코퍼스를 기반으로 빈도수(frequency)와 사용범위(range)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이전 교육과정 어휘 목록은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존하거나 국내외 어휘 목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어휘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 방식의 타당성이나 어휘의 등급 구분에 한계가 있었다(이문복, 신동광, 2015에서 재인용). 기존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구어 및 문어를 포함한 방대한 원어민 언어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어휘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보편화된 기준인 빈도수와 사용범위를 적용하였다.

둘째, 초등 권장 어휘는 대규모 코퍼스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출된 어휘들을 대상으로 '친숙도'와 '초등 권장 어휘 추천'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되었다. 이는 코퍼스가 아동과 성인의 언어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동자료의 비율이 적어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기본 어휘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휘를 지도할 때도 빈도어휘뿐만 아니라 주제(theme) 및 학습자와 관련한 저빈도 어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Milton, 2009).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권장 어휘는 EFL 상황인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특성과 초등학생들의 신체적·인지적 발달 단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친숙도'와 '초등 권장 어휘 추천'이라는 주관적 기준이 적용하여 선정되었다.

이러한 체계적 절차에 따라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기본 어휘 목록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 800개의 초등 권장 어휘를 선정·제시하였다. 하지만 주관적 기준에 따른 선정은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의 인식에 근거하였으며, 교사들도 소수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별 교사들 간 인식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광, 2018; 이문복, 신동광, 2015).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새로운 방식에 따른 어휘 선정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목록에는 대표형만 제시하며, 대표형은 굴절 및 파생의 변화형을 포함한다. 또한 초등·중등·고등 일반 선택과목까지 권장 어휘 수의 90%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학습경감을 위해 교과서 개발 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어휘 수 비율을 10%로 줄인 것이며,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어휘 수가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동일어의 의미 변화 및 문법 기능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낱말로 간주한다는 지침은 이전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close*'의 경우 형용사, 부사, 동사로 쓰일 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어휘를 의미별로 등급화 하지 않고 한 개의 낱말로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형미(2011)는 이처럼 동일어로 제시될 경우, 학생들은 실제 문맥에서 쓰인 다의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게 되므로 별개의 어휘로 간주하고 어휘 목록에 따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기본 어휘 목록 관련 선행연구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되어 증감을 반복하며 발전되어왔으나, 선정 기준 및 어휘 수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장경숙(2007)과 권혁승(2009)은 각각 제3~5차,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영희(2004)는 제6,7차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참고자료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어휘들을 추출한 뒤 교사들의 어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목록에는 '음식' '생물' '날씨' '자연' '운동·취미·오락' '명사' 등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한 어휘들이 보완되었다.

주형미(2011)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과 지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어휘 목록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어휘의 단위로서 어휘군(word family)을 설정하였고, 어휘 목록 선정 기준으로 코퍼스에 근거한 객관적 기준인 빈도수뿐만 아니라 주관적 기준인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 및 수준도 고려하였다. 또한 다의어와 문법 기능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의미에 따라 다른 어휘로 간주하여 제시하였다.

김현경(2014)은 6차에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교과서 어휘를 분석한 결과, 이해가능한 텍스트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어휘 지침을 통한 어휘 통제와 초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어휘 선정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이러한 개정안에 근거하여 대규모 코퍼스와 '친숙도' '초등 권장 어휘 추천'이라는 주관적 선정기준을 새로 도입

하여 개선되었다. 이문복과 신동광(2015)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개발을 위한 선정 기준과 개발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개선점으로 첫째, 어휘 선정과 관련하여 빈도수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과 친숙도와 같은 주관적 기준을 절충하는 방안, 둘째, 영어 아동 코퍼스 구축, 셋째, 어휘의 의미, 품사, 연어 표현에 따른 등급화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신동광(2018)은 주관적 선정 기준 적용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8개의 선정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텍스트 포괄범위(text coverage)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특성 및 학습 상황을 반영한 어휘 개선과 어휘의 등급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교과서 어휘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영어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및 의미들이 등급별로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타당성을 검증받은 EVP와 CEFR-J Wordlist의 등급과 비교하고자 한다.

2. 어휘 참조 기준

1) CEFR과 EVP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제시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언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재, 평가 등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공통된 틀을 마련하였다(Council of Europe, 2001).

CEFR은 의사소통 목적의 언어 사용에서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지식과 기술(skill)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였다. CEFR의 척도는 언어 능숙도를 A1에서 C2에 이르기까지 6개 공통참조단계(Common Reference Levels)로 구분하고 있다. 각 단계는 기초적 언어사용(Basic User: A1, A2), 자립적 언어사용(Independent User: B1, B2), 숙달된 언어사용(Proficient User: C1, C2) 등으로 구성되며, 맥락에 따라 일부 단계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EFR은 각 참조 단계를 능력기술문('can-do' descriptor)으로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평가에서 준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CEFR은 성인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습자들에게로 적용의 폭이 넓혀졌으며,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의 언어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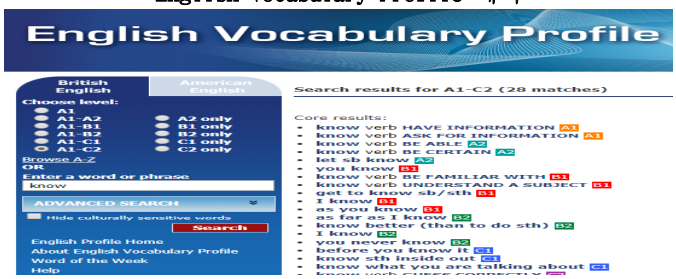
반면 CEFR은 일반적이며 맥락 독립적 틀을 제공하므로, 특정 언어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했을 때 그 유용성이 보장될 수 있다. 영어에 대한 참

조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English Profile(EP) 프로그램은 장기간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CEFR 단계와 연계한 '영어'의 참조기준기술문을 개발하였다. EP는 Cambridge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코퍼스 등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CEFR의 각 단계에서 어떤 어휘(vocabulary), 문법(grammar), 기능(function)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재조명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무료 EP 검색을 통해 이용 가능하므로 교육과정 개발자, 교사, 교재 및 평가 개발자, 연구자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영어에 대한 참조 정보를 직접적으로 구함으로써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 중 EVP(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는 학습자 코퍼스뿐만 아니라 원어민 코퍼스, 교재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어휘, 구, 구동사, 관용구를 CEFR 단계에 따라 등급화 한 것으로, 사전(dictionary) 유형과 동일하게 발음, 정의, 예시 및 학습자 언어 예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구분하고 있다. Leńko-Szymańska(2015)는 학습자 코퍼스에서 뽑은 90개 수필문을 EVP 기준에 따라 언어 능숙도 수준을 부과한 결과와 채점자가 부과한 결과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EVP는 학습자 중간 언어 단계를 구분짓는 기준점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EVP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어휘를 중심 의미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어휘 내에서 개별적 의미(individual meaning)에 따라 단계를 구분·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동일한 어휘라도 다양한 의미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습득된다는 학습자 코퍼스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know*라는 동사의 경우, '*have information*'의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 A1단계에서부터 '*guess correctly*'의 비유적 의미, '*know best*'의 관용 의미를 나타내는 C2단계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그림 1 참조). 따라서 EVP는 어휘를 의미별로 단계를 구분함으로써 교육과정, 교재 및 평가 개발 과정에서 CEFR 단계에 적합한 어휘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English Vocabulary Profile 예시



2) CEFR-J Wordlist

CEFR-J는 일본인의 영어수준과 일본의 영어 교수·학습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한 일본판 CEFR이다. 사전 작업으로 2004년부터 4년 동안 일본인 영어 능숙도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유럽 및 인접 아시아 국가들의 영어 교육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의 영어 능숙도 수준 결과에 근거하여 CEFR의 공통참조단계에서 Pre-A1 단계를 추가하고 A1에서 B2사이에 9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CEFR-J를 개발하였으며, CEFR-J 단계별 능력기술문도 일본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Negishi, Takada, 2011). 또한 교재 개발자, 교사들이 CEFR-J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CEFR-J Wordlist, ELP Can-Do Descriptor Database, CEFR-J inventory of English 등 여러 가지 관련 자료(resources)들을 개발하였다.

CEFR-J Wordlist(Tono, 2019)는 일본판 단계별 어휘 목록으로서, 중국, 한국, 대만 등 일본과 유사한 EFL 상황의 인접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공통 어휘를 추출한 뒤, EVP의 어휘 목록과 비교하여 누락된 어휘를 추가하여 만들었으며, 도쿄 대학 외국어 연구실에서 이 목록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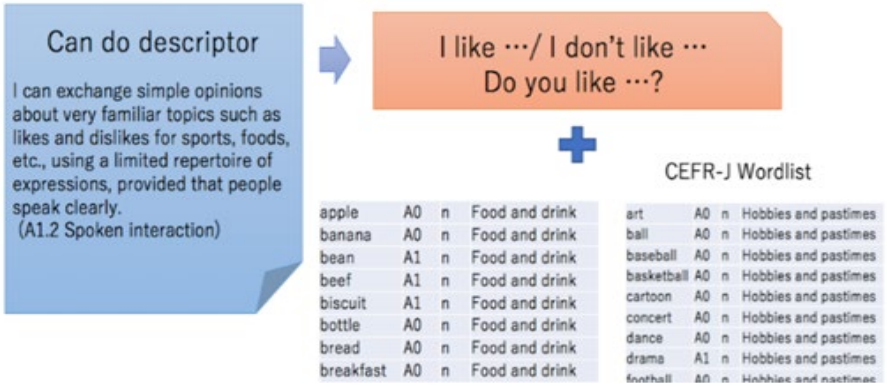
CEFR-J Wordlist는 어휘 및 의미 단계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EVP 방식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EVP와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동일하더라도 품사별로 분리하여 단계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mean*'의 경우, 동사형은 A1, 형용사형은 A2, 명사형은 B2단계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림 2 참고). 반면 차이점은 EVP는 동일어라 하더라도 같은 품사내에서의 의미변화를 구분하여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CEFR-J Wordlist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try, keep* 등과 같은 동사는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CEFR-J Wordlist는 개별 의미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핵심이 되는 의미 단계만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CEFR-J Wordlist의 예시

me	pronoun	A1		
meal	noun	A1	Food and drink	Food and drink
mean	adjective	A2		
mean	noun	B2		
mean	verb	A1		
meaning	noun	A2		
meaningful	adjective	B1		
means	noun	B2		
meanwhile	adverb	B1		
measure	noun	B1		
measure	verb	B1		
measurement	noun	B1		
meat	noun	A1	Food and drink	Food and drink
mechanic	noun	B1	Work and Jobs	Personal identification

한편 이러한 어휘 정보는 해당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 알맞은 어휘 수준을 제시해준다. 예를 들면, '스포츠, 음식 등에 대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친숙한 주제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은 CEFR-J의 A1.2단계에 속한다.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표현은 'I like ~/I don't like~' 'Do you like ~?'로서, 이 수준에 적절한 A0 또는 A1단계 어휘로는 'apple, banana, bean, beef' 등과 같은 음식관련 어휘와 'art, ball, baseball, basketball' 등과 같은 스포츠 관련 어휘들이 해당된다(그림 3 참조). 따라서 CEFR-J Wordlist는 성취기준에 적합한 어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학습자 수준에 사용가능한 어휘 여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3
CEFR-J 능력기술문에 적합한 Wordlist 예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VP와 CEFR-J Wordlist는 방대한 자료와 타당한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각각 맥락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과서 어휘 및 의미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에 대한 세계 공통 기준인 EVP 기준과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을 반영한 CEFR-J Wordlist 기준을 사용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초등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 및 의미가 공인된 어휘 목록의 기준에 견주어 적합하게 잘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어휘 및 의미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 대상으로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개 출판사 A(천재출판)와 B(YBM)의 3·4·5·6학년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각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별 신출 어휘 및 의미의 단계를 앞서 소개된 EVP와 CEFR-J Wordlist와 비교하였다.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과서의 단원별 신출 어휘를 추출하였으며, 기능어, 외래어, 국가명·달·요일·계절 등을 지칭하는 어휘를 제외하고 내용어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명사, 전치사, be동사 등의 기능어는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게 제시되지만 본 연구 목적인 의미 분류와 관련성이 적으며, 외래어 및 국가명·달·요일·계절 등을 지칭하는 어휘는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라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추출된 어휘는 기본 어휘 목록과 대조하여 초등 권장 어휘가 아닌 어휘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또한 다의어인 경우 교과서 예시문을 통해 해당 품사 및 의미를 구별하였다.

셋째, 각 신출 어휘 및 의미에 부합되는 단계를 EVP와 CEFR-J Wordlist와 비교하여 부여하였다. EVP는 해당 사이트(http://vocabulary.englishprofile.org)에 접속한 뒤, 각 신출 어휘의 의미별 단계 결과 목록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의미와 일치하는 단계를 대조하여 찾았으며, CEFR-J Wordlist는 해당 사이트(http://cefr-J.org)에서 Version 1.5(Tono, 2019)를 다운받은 뒤, 신출 어휘 및 의미 단계를 검색하였다. 검색과정에서 EVP는 의미별 예시문을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CEFR-J Wordlit는 EVP와 마찬가지로 동일어의 품사별 의미 구분은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어 내 동일 품사에서의 의미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휘 및 의미 단계의 정확성이 EVP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자료 분석

각 신출 어휘 및 의미의 적정성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은 학년별 사용된 어휘 및 의미 단계를 수량화하여 비교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초등영어 수준에서 어려운 어휘들이 무엇이며, 교과서에서 어떤 단계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적정성 기준은 첫째, 빈도수와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을 양적·질적 분석에 모두 적용하였으며, 둘째, 초등영어 성취수준이 A1·A2단계라는 연구 결과(전지혜, 김정렬, 2018; 황필아, 2016)에 근거하여 이 수준보다 높은 B1·B2단계의 어휘 및 의미들을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였다. 질적 분석은 저빈도 어휘지

도의 필요성(Milton, 2009)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출된 어휘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초등 권장 어휘, 학습 주제, 학습자 특성 및 학습 상황, 선행연구결과 등에 근거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및 의미의 적정성을 추론하였다. 이 단계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추론적 해석에 대해 초등영어 전담교사 3명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초등교사 3인은 모두 10년 이상 영어수업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석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영어교육 전문가로 간주할 수 있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영어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및 의미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 어휘 및 의미가 등급별로 잘 제시되고 있는지 EVP와 CEFR-J Wordlist와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어휘 및 의미 단계 적정성에 대한 양적 결과

초등영어 A·B교과서의 어휘 및 의미는 EVP 기준과 CEFR-J Wordlist 기준과 비교할 때, 3~4학년군에서 A1·A2단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A1단계가 많이 나타났고, 5~6학년군에 이르러서는 A2단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B1·B2단계도 발견되었다(표 1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VP 기준에 근거할 때 A·B교과서 모두 3~4학년군에서는 A1단계가 70%내외로 A2단계보다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었으며, B1단계는 1~10%로 소수 발견되었다. 5~6학년군에서는 A1단계가 50% 내외로 여전히 많이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A2단계가 30%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B1단계가 10~20%로 급증하였다. B2단계는 A교과서의 경우 5~6학년에 3% 사용되었으며, B교과서에서는 4학년에서만 5% 나타났다. B1·B2단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마찬가지로 CEFR-J Wordlist 기준에 근거할 때도 학년군별 A1·A2단계 비율이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B1·B2단계의 어휘 및 의미는 B교과서의 6학년 16.8%를 제외하고 5% 내외로 EVP 기준보다 적게 사용되었으나, 이는 EFL 상황과 동일어의 동일 품사 내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CEFR-J Wordlist 기준의 특성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 어휘 및 의미는 3~6학년에 걸쳐 A1·A2단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B1·B2단계는 대체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으나 5~6학년에서 증가하였다. 2015 개정 초등영어과 성취기준은 3~4학년군이 Pre-A1, A1

단계, 5~6학년군이 A2, A2+단계에 해당된다(전지혜, 김정렬, 2018; 황필아, 2016). 따라서 초등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및 의미 수준은 대체로 성취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되나, 초등 성취수준보다 높은 B1·B2단계의 어휘 및 의미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1·B2단계 어휘 및 의미는 문자언어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5~6학년 교과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임찬빈 외 16인, 2011). 이러한 결과는 추후 교과서 집필 시 교과서 어휘 및 의미 난이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표 1
EVP·CEFR-J Wordlist 기준 대비 초등영어 교과서 어휘 및 의미 단계

	학년	기준	A1	A2	B1	B2	합계 (%)
A 교과서	3	EVP	62(71.3)	19(21.8)	6(6.9)		87
		CEFR-J	64(73.6)	19(21.8)	4(4.6)		
	4	EVP	68(68.7)	25(25.3)	6(6.1)		99
		CEFR-J	72(72.7)	25(25.3)	2(2)		
	5	EVP	68(51.1)	41(30.8)	19(14.3)	5(3.8)	133
		CEFR-J	75(56.4)	46(34.6)	7(5.3)	1(0.8)	
	6	EVP	62(50)	45(36.3)	13(10.5)	4(3.2)	124
		CEFR-J	68(54.8)	48(38.7)	4(3.2)	4(3.2)	
B 교과서	3	EVP	65(71.4)	25(27.5)	1(1.1)		91
		CEFR-J	65(71.4)	25(27.5)	1(1.1)		
	4	EVP	59(76.6)	12(15.6)	2(2.6)	4(5.2)	77
		CEFR-J	64(83.1)	12(15.6)	0	1(1.3)	
	5	EVP	59(50.9)	42(36.2)	15(12.9)		116
		CEFR-J	68(58.6)	42(36.2)	6(5.2)		
	6	EVP	45(44.6)	30(29.7)	26(25.7)		101
		CEFR-J	53(52.5)	31(30.7)	17(16.8)		

2. 교과서 어휘 및 의미 단계 적정성에 대한 질적 결과

1) 초등영어 수준의 적정성을 벗어난 교과서 어휘

본 연구는 초등영어 수준의 적정성을 벗어난 교과서 어휘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빈도수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과 초등 권장 어휘, 학습 주제, 학

습자 특성 및 학습 상황 등과 같은 주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먼저 객관적 기준인 EVP와 CEFR-J Wordlist에 근거하여 초등영어 수준보다 높은 B1·B2 단계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어휘들은 다음 2가지 유형 - EVP 기준 B1·B2단계이면서 CEFR-J Wordlist 기준 A1·A2단계에 해당되는 유형과, EVP 기준과 CEFR-J Wordlist 기준 모두에서 B1·B2단계에 속하는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어휘에 대해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초등영어 교과서 어휘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서 EVP 기준 B1·B2단계이면서 CEFR-J Wordlist 기준 A1·A2단계에 속하는 어휘들은 아래 표 2와 같다. 이 유형의 어휘들은 공통 기준에서는 자립적 언어 사용 단계에서 학습되나, EFL 상황에서는 기초 단계에 학습 가능한 어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어휘들이 교육과정이 선정하고 있는 초등 권장 어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어휘들은 *flag, scientist, beef, hero, palace, prince, job, fan, tiger, button, delicious, fever, earth* 등이다.

표 2
첫 번째 유형(EVP: B1·B2 / CEFR-J:A1·A2) 어휘

[EVP] B1·B2 [CEFR-J]A1·A2	초등 권장 어휘 ○	초등 권장 어휘 ×
A 교과서	flag, scientist, beef, hero, traveler, contest, habit, tower, ugly	director
B 교과서	full, job, fan, try, palace, prince, cool, leaf, elementary, future, bad, wrong, dream, line, smart	cheer, shoulder, shake, pleasure, lose
A/B교과서 공통	tiger, exercise, button, delicious, fever, over, earth	traditional, invent

반면 첫 번째 유형에 속하나 초등 권장 어휘가 아닌 어휘들이 소수 발견되었다. 초등 권장 어휘는 '친숙성' '초등 권장 어휘 추천' 등의 주관적 기준이 적용된 결과이므로, 초등 권장 어휘가 아니라고 해서 초등영어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초등교사 3인의 현장경험에 근거하여 해당 어휘들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들은 *shoulder*, *shake*, *cheer*(*cheer up*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때)은 학생들에게 친숙하며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다. *lose*는 교

사가 인식하기에 어렵지만,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이미 익숙한 어휘라고 설명하였다. *pleasure*은 듣기로 제시되었을 때는 쉽지만, 읽기 자료로 제시되었을 때는 철자 때문에 어렵게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director*, *traditional*, *invent*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라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director*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하지만 접할 경험이 없어 친숙하지 않으며, *invent*는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어렵게 인식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traditional*의 경우 어려운 어휘이지만 전통 문화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어휘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초등교사들은 인식하였다. 따라서 *cheer, shoulder, shake, lose, traditional* 등의 어휘들은 비록 초등 권장 어휘에 속하지 않지만 초등학생들의 친숙도 및 수업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초등영어 수준에 적정한 어휘로 간주할 수 있다. 그 외 *director, pleasure, invent* 등은 학생들이 어려운 어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어휘들에 대한 적정성은 아래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두번째 유형은 EVP와 CEFR-J Wordlist 기준 모두 B1·B2단계에 속하는 어휘들로서 공통 기준과 EFL 기준에서 초등영어 수준보다 어려운 수준으로 간주된다. 이 어휘들을 주관적 기준인 초등 권장 어휘 여부에 따라 다시 나누면 아래 표 3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초등 권장 어휘에 해당되는 *strawberry, zebra, firefighter, season, baker, giraffe, touch, sour, designer, curly* 등은 빈도수가 낮고 철자·발음이 어려워 언어적 자립이 가능한 단계(B)에서 학습 가능한 어휘에 해당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친숙성과 학생들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초등영어 어휘로 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두 번째 유형(EVP: B1·B2 / CEFR-J:B1·B2) 어휘

[EVP] B1·B2 [CEFR-J]B1·B2	초등 권장 어휘 ○	초등 권장 어휘 ×
A 교과서	strawberry, zebra, firefighter, fry, comedian, race, tail	dive, feed, pancake, medium, pond, deer
B 교과서	season, floor, baker, land, score	stretch, parrot, announce, secret, plant(V), spicy, tissue, scary, graduation
A/B교과서 공통	giraffe, touch, sour, designer, curly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하나 초등 권장 어휘가 아닌 어휘들을 대상으로 어휘 인식에 따른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살펴보면, *feed, pancake, stretch, secret, spicy, tissue, scary* 등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모국어 상황에서도 사용되는 어휘이므로 초등학생들에게 친

숙하며 어렵지 않는 어휘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dive, medium, pond, deer, parrot, announce, plant(V), graduation* 등은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어휘라고 지적하면서, *dive*와 *deer*은 철자가 쉬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배운다고 설명하였다. '중간'을 의미하는 *medium*의 경우, 학생들에게 *middle*이 더 익숙한 어휘로 인식되며, *announce*는 우리말에 '아나운서'가 있지만 영어의 *announce*와 관련이 있는 줄 몰라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dive, feed, pancake, deer, stretch, secret, spicy, tissue, scary* 등의 어휘들은 비록 초등 권장 어휘에 속하지 않지만 초등학생들의 친숙도를 고려할 때 초등영어 수준에 적정한 어휘로 간주할 수 있다. 그 외 *medium, pond, parrot, announce, plant(V), graduation*등은 생소하여 학생들이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어휘들에 대한 적정성은 아래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유형의 *director, pleasure, invent* 등의 어휘와 두 번째 유형인 *medium, pond, parrot, announce, plant(V), graduation* 등의 어휘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초등영어 수준에 적절하지 못한 어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초등교사들의 주관적 판단기준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여 이 어휘들에 대한 초등어휘의 적합성을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조하여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parrot, pond, plant(V)* 등의 어휘들은 이영희(2004)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유용도와 학습용이도가 낮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ESL 교재, 사전, 싱가포르 초등 교육과정, 미국 교과서 어휘, 우리나라 교과서 어휘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추출하여 50여명의 교사들의 어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plant*는 2009 개정 어휘 목록 중 2015 개정 기본 어휘에서 삭제된 어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plant*의 경우 교과서에 쉬운 명사형(A1)이 아닌 어려운 동사형(B1)으로 제시되고 있어 (예.*I'm going to plant trees with my family*) 학생들에게 더 어려운 어휘로 간주된다.

또한 *invent*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등 권장 어휘가 아니었지만 교과서에 사용되었다(강영희, 2017). *invent*는 초등학생들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2015 개정 A·B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제시됨으로써 어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A교과서는 'Who invented *Angbuilgu*?'와 'Who made *geobukseon*?'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invent*'와 '*make*'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우리말을 영어철자로 옮긴 것도 읽기 어려워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invent*'라는 어려운 동사 대신 유용성이 높은 쉬운 어휘인 '*make*'로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어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director, pleasure, invent, medium, pond, parrot, announce,*

plant(V), graduation 등의 어휘들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빈도수가 적을 뿐 아니라 어휘 유용성이 낮아 기본 어휘를 먼저 습득해야 하는 초등어휘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등영어 교과서는 일상생활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관심있는 주제를 활용하여 목표 어휘와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주제는 색깔, 동물, 과일, 직업, 음식, 날씨, 운동 등이다. EVP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계별 어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영어 학습자들 수준에 적합한 어휘들을 선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EVP 상세 검색창에서 동물(animal)에 대한 주제를 검색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1: bird, cat, cow, dog, fish, horse, pet, pig, sheep
A2: bear, chicken, dinosaur, duck, elephant, insect, lion, monkey, mouse, rabbit, rat, snake,
B1: camel, dolphin, donkey, giraffe, kangaroo, shark, tiger,
B2: deer, eagle, fox, zebra

동물 주제에 대한 어휘들이 A1단계에서부터 B2단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초기 학습자들을 위한 초등영어 교재 집필 시 A1·A2단계 어휘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목록 중 현재 초등영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어휘는 *bird, cat, fish, elephant, lion, giraffe, tiger, deer, zebra* 등(밑줄 친 어휘)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giraffe, tiger, deer, zebra* 등의 어휘는 B1·B2단계에 속하지만 초등학생들의 친숙도를 고려하여 초등어휘로 선정가능하다. 하지만 초등교사들은 학생들이 *giraffe, zebra*의 발음과 철자는 여전히 어려워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에 *giraffe, zebra* 대신 동물 주제와 관련한 A1·A2단계의 다른 어휘들(예. cow, horse, duck, monkey 등)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영어 수준의 적정성을 벗어난 교과서 어휘별 의미

본 연구는 어휘의 의미(sense)변화에 따른 단계 구분의 필요성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개별 어휘의 의미별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해당 어휘의 의미를 EVP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CEFR-J Wordlist 기준은 개별 의미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초등영어 교과서 어휘 중 제시된 개별적 의미가 초등영어 수준의 적정성을 벗어나 사용된 예시는 표 4와 같다. 그 중 B교과서(4학년)에 제시된 *full*은 '*I'm full now.*'에서와 같이 B2의 높은 단계의 의미('having eaten enough

표 4
초등영어 수준의 적정성을 벗어난 교과서 어휘별 의미 단계

어휘	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의미단계	EVP에 제시된 다른 의미 단계
keep	초 4	[B2]to write something down to remember it ex. *I keep a diary. Do you keep a diary?*	[A2]to have something permanently or for the whole of a period of time ex. *Do you want this photograph back or can I keep it?*
just	초 5	[B1]only ex. *Don't touch it. Just look.*	[A2] 1) recently (a very short time ago) ex. *We've only just begun.* 2) almost now(now or very soon) ex. *I'm just leaving!*
try*	초 5	[B1]to do, test, taste to discover if it works or if you like it ex. (떡메 치는 것을 보면서) *Please come and try.*	[A2] to attempt to do something ex. *I tried to open the window but I couldn't.*
space	초 5	[B1]the area outside the earth's atmosphere, where the planets and the stars are ex. *I'll join a space camp.*	[A2] an empty area which is available to be used ex. *Is there any space for my clothes in that closet?*
dream*	초 5	[B1]something that you want to happen very much but that is not very likely ex. *My dream house is a cookie house.*	[A2] sleep ex. *I had a dream that I won the lottery.*
save	초 6	[B1]to stop something from being destroyed ex. *We should save the Earth*	[A2] 1)to keep money. ex. *He's saving up for a new computer.* 2) to keep something to use in the future ex. *I've saved some food for you.*
full	초 4	[B2] having eaten enough food ex. *I'm full now.*	[A2] 1) If a container or space is full, it contains as many things as possible ex. *The cinema is full.* 2) complete and including every part ex. *Please give your full name.*

(*표시된 것은 A·B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의미한다.)

food')로 사용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친숙한 표현이며 A2의 의미('to contain as many things as possible')로부터 추측 가능하므로 적정 수준의 의미로 간주하였다. 그 외의 어휘별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ry*와 *dream*은 A·B교과서(5학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어휘로서, 초등영어 수준의 A2의미가 제시되기 이전에 B2의미로 먼저 제시되고 있다. *try*의 경우, A2의 의미는 'to attempt to do something'을 나타내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Please come and try.*'라는 문장에서는 'to do, test to discover if it works or if you like it'를 나타내는 B1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dream*의 경우, 'sleep'을 나타내는 A2의 쉬운 의미 대신 교과서 '*My dream house is a cookie house.*'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something that you want to happen very much but that is not very likely'의 B1의미가 먼저 제시되었다.

*keep*의 경우, A교과서(4학년)에서 '*I keep a diary. Do you keep a diary?*'에서와 같이 'keep a diary'라는 연어(collocation)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keep*의 의미는 'to write something down to remember it'을 나타내는 B2단계에 해당되며, 보다 쉬운 A2의 의미 'to have something permanently'는 언어입력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초등교사들은 이 경우 학생들은 *keep*라는 동사를 diary와 연관 지은 문장만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휘의 사용범위를 고려할 때, keep a diary 대신 write a diary로 제시하고, *keep*은 A2의 의미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save*의 경우, A교과서(6학년)에서 B1의 의미 'to stop something from being destroyed'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We should save the Earth.*'로 제시되었다. save 또한 A2의 쉬운 의미로 'to keep money' 또는 'to keep something to use in the future'을 포함하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B1의 의미만 제시되고 있다. *just*와 *space*도 마찬가지로 A2의미보다 B1의미로 먼저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 중 *try, dream, keep, just, space, save* 등은 초등영어 교과서에 처음 제시될 때 쉬운 의미의 A2단계가 아닌 B1·B2단계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서가 해당 어휘의 개별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EFL학습자들의 주요 언어 입력이 교과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서는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되 학습자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개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시 연어 표현, 특정 주제에 한정된 어려운 의미보다는 보편적이고 쉬운 의미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어휘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개별 어휘 및 의미의 단계적 습득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2015 개정 초등영어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및 의미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교과서 어휘 및 개별 의미를 영어에 대한 공통기준인 EVP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EFL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CEFR-J Wordlist와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은 학년별 사용된 어휘 및 의미 단계를 수량화하여 비교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초등영어 수준의 적정성을 벗어난 어휘들이 무엇이며, 교과서에 어떤 단계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적정성은 2015 개정 초등영어과 성취기준이 Pre-A1, A1단계, A2, A2+단계에 해당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어휘 및 의미 수준도 A1·A2 단계가 적정하다고 간주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분석 결과, 교과서 어휘 및 의미는 3~6학년에 걸쳐 A1·A2단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B1·B2단계는 대체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으나 5~6학년군에서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초등영어 교과서의 어휘 및 의미 수준이 성취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질적 분석 결과, *director, pleasure, invent, medium, pond, parrot, announce, plant(V), graduation* 등의 어휘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초등영어 수준에 적절하지 못한 어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일부 어휘는 처음 제시될 때 A2단계의 쉬운 의미가 아닌 B1·B2단계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어휘가 개별적 의미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초등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어휘 및 의미 수준은 성취기준에 적합한 A1·A2단계에 해당되나, 빈도수 및 유용성이 낮은 B1·B2단계의 어휘들과 개별적 의미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어휘 및 의미는 적은 숫자이지만, 주로 5~6학년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추후 기본 어휘 목록 개선과 교과서 집필 시 초등영어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개별적 의미사용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교과서 어휘는 특정 주제나 한정된 표현에만 사용되는 어휘 또는 의미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범위가 넓은 보편적 어휘 또는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어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Nation과 Webb(2011)의 BNC-COCA 2500은 친숙한 주제에 대한 구어, 문어, 아동 문학 코퍼스를 기반으로 기초 학습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상위 어휘 2,000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등영어 어휘 선정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서 어휘별 의미는 난이도 및 습득순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 어휘 목록 개선 작업 시 다의어의 개별 의미에 따른 단계 구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영어 교과서 5종 중 2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석이므로, 결과 일반화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나머지 3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 분석에 따른 적정성은 연구자와 초등교사 3인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교사 및 학생의 어휘 인식에 근거한 분석방법을 보완함으로써 어휘의 적정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영희. (2017). *2009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어휘 분석*. 미출간석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권혁승. (2009). 영어의 기초어휘 연구. *새국어생활, 13*(3), 31-44.

김현경. (2014).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 영어 교과서 어휘 변화 분석*. 미출간석사학위 논문. 한국 외국어대학교,서울.

신동광. (2018). 영어 기본 어휘 선정 기준의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381-401.

이문복, 신동광. (2015).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개발. *영어교과교육, 14*(4), 115-134.

이영희. (2004).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에 관한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서울.

임찬빈, 진경애, 이문복, 장경숙, 김미경, 이병천, 김성혜, 권오량, 김인석, 이현우, 오준일, 김영숙, 이성희, 이병민, 박한준, 한정희, 백인황.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연구보고 CRC 2011-1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경숙. (2007).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영어교육, 62*(2), 331-353.

전지혜, 김정렬. (2018).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CEFR Basic User 단계의 언어능력 기준안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65-87.

주형미. (2011). 국가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개선 연구. *영어학 연구, 17*(1), 57-81.

황필아. (2016). 2015 개정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기준 적정성 연구. *영어교과교육, 15*(4), 147-1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English Vocabulary Profile. Retrieved July, 2019, from the World Wide Web:http://englishprofile.org/wordlists.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ńko-Szymańska, A. (2015). The English Vocabulary Profile as a benchmark for assigning levels to learner corpus data. In Callies, M. & Gőtz, S. (Eds.), *Learner corpora in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pp. 115-140).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Milton, J. (2009). *Measuring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ion, I.S.P., & Webb, S. (2011). *Researching and analyzing vocabulary.* Boston: Heinle Cengage Learning.

Negishi, M., & Takada, T. (2011).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the CEFR-J*. Paper presented at the ALT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Krakow, Poland.

Tono, Y. (2019). *CEFR-J Wordlist Version 1.5*.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trieved August, 201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efr-j.org.

Wilkins, D. A. (1972).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Edward Arnold.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Elementary

황필아
경인교육대학교(교수)
영어교육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21044
pilahh@ginue.ac.kr

Received: October 16, 2019
Reviewed: November 27,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December 5, 2019